
노인에 대한 태도, 지식, 경험이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이민숙*, 양소남**

Effect of Social Work Student's Attitude,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Senior Citizens

Minsook Lee*, Sonam Yang**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을 탐색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2011년 5월에서부터 6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에서 전문대학을 포함한 4년제 대학과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7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702명의 학생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노인부양 의식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4.05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 노인과의 긍정적인 동거경험, 노인관련 자원봉사경험,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신체적·생리적 지식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논의와 노인부양의식의 고취를 위한 사회복지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노인부양 의식, 노인에 대한 긍정적 동거경험, 노인관련 자원봉사경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

Abstract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experiences of, knowledge of, and attitude toward the aged affect consciousness of supporting the aged among students of social welfare. 702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at university in the capital and regional area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from May to June, 2011. The result revealed that there are factors affecting consciousness of supporting the aged such as their attitude, physical and physiological knowledge, and volunteer experiences and positive experiences in cohabitation with the aged.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it is expected that the outcome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romote the students' conscious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Key Words : conscious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attitude toward the aged, volunteer experiences, knowledge of the aged, experiences associated with the aged

1.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그리고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41].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데 있

다. 이와 더불어 근대 산업화의 발달이 도시화와 핵가족화라는 외형적 변화를 가져왔고,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따른 변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가족주의적 가치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해왔던 역할의 상당부분이 사회로 이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가부장적인 확대가족 제도에서 당연시 되어오던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이 점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2012년 8월 30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9월 21일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통계청이 사회조사를 통해서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40, 42], 노인부양의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 13세 이상의 응답자 중 ‘노인은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8.3%로 나타나, 전통사회에서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005년도 자료에서 노인 부양은 ‘가족이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60.7%였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이다. 그리고 2010년 자료에서 ‘가족과 정부, 그리고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의견이 37.8%, 그리고 ‘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18.4%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의한 부양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구의 자유주의국가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가족주의 국가, 선도적으로 발달된 복지국가 체제를 갖추고 노인에 대한 공적 부양을 펼쳐왔던 시민주의 국가들에서조차 노인부양에 있어 가족부양자를 동반자 또는 의무자로 생각하여 노인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49]. 이렇듯 가족이 지닌 노인부양기능과 이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게다가 선진국에 비해 공적부양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부양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노인과 이들에 대한 부양부담을 안고 있는 가족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임은 분명하다.

국내에서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 청소년, 대학생, 주부 등 다양한 세대별로 부양의식수준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14, 16, 34, 11, 3]. 또한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와 한국 대학생의 부양의식 수준을 비교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12, 15, 33]. 흥미로운 점은 기존 연구들이 노인들의 경우 경제적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경우는 경제적 부양보다는 서비스적 부양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세대 간 부양의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이다[21, 39, 17].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할 때, 고령사회 노인문제의 핵심은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이들의 노화에 따른 다양한 욕구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노인부양주체를 담당할 대학생

들의 부양의식을 연구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은 실제 부양행동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5], 실제적인 노인부양행동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부양의식의 고취는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 그리고 노인인구의 팽창과 함께 노인복지현장에서 일하게 될 사회복지사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지식, 경험이 노인부양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부양기능의 쇠퇴가 노인부양문제의 핵심을 이룬다는 관점에서, 사회복지전공 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을 살펴보고, 특히 노인에 대한 태도, 지식, 경험이 이들의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노인부양 복지대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노인부양과 노인부양의식

노인부양의식이란 부모에 대한 의무 보호부양과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는 자녀의 성숙된 부양태도 또는 노부모의 복지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적 의무감으로 노부모를 부양하고 보호하려는 의무와 의지를 말한다. 즉 노인부양의식은 경제적·정서적·신체적 환경이 열악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25, 24, 26, 44, 51].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는 유교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전통적인 확대가족 구조 안에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지극히 바람직한 문화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부양가족은 물론 노인 자신도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대별 부양의식수준 실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다. 부양의식수준을 비교한 연구들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양의식과 서비스 부양의식이 비교적 높은 반면, 정서적 부양의식은 낮게 나타났으며[28, 1], 노동시장 참여 여성의 경우에는 취업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노인부양에 관한 심리적 부담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노인을 모시고 있거나 모신 경험이 있는 중년남녀 주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형제순위와 성별에 따라 부양의식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32]. 즉 장남이거나 외아들일 경우 부모 부양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부양이나 서비스적 부양보다 정서적 부양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부양의식이나 정서적 부양의식에 비해 서비스적 부양의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8].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부양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과거의 연구들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1, 29, 36, 37], 이를 통해 변화된 부양의식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2.2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적으로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출생순위, 성장지역, 경제수준 등의 개인적 특성, 가족형태, 가족친밀성, 가족의사소통, 부양형태 등의 가족특성, 노인에 대한 태도 등이 지적되고 있다[35, 3, 7].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연구 시점이나 연구대상, 가족환경 및 사회변화에 따라 각각 상이한 관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요인과 지식요인, 노인관련 경험요인을 중심으로 이들 요인이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인에 대한 태도 요인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이 가진 성향을 이해하고 노인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노인에 대한 감정과 사고, 행동방식을 말한다[10, 9]. 현대 사회에서 노인의 낮은 지위는 '노인차별주의'와 관련되어 있으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태도를 가지게 한다.

그동안 보고된 국내외의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과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공자 310명을 조사한 연구에서, 이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4]. 한편 싱가포르의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201명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빈도가 높았고, 이들 중 5.1%만이 노인관련 직종에 종사하고자 하였다[47]. 미국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학생들은 생산성

과 변화에의 적응, 독립성, 그리고 낙관성에 있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학부 학생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들 대부분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7, 46].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이와 함께 소수이기는 하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일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17, 19].

2) 노인에 대한 지식 요인

노인에 대한 지식은 노인과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으면 노인에 대해 왜곡되고 편협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확한 지식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을 측정된 Palmore의 연구에서, 노년학전공 대학생이 일반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정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Palmore는 이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변수는 교육수준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식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50]. 노인에 대한 지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3, 20], 연령이 30세 이상인 대학생이 나이가 어린 학생층에 비해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았다[9]. 또한 농어촌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도시지역출신 학생들보다 지식수준이 높았다[20].

3) 노인관련 경험 요인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관련 경험요인으로는 동거경험, 노인관련 과목 수강경험,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 등이 제시되고 있다.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없는 학생이 노인과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13, 18],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한다[22, 1]. 중요한 사실은 노인과의 동거를 긍정적으로 경험했을 경우 높은 노인부양의식을 보인다는 결과이다[8]. 이를 통해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형성된 조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노인부양의식 수준과 직결된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노인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과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3]. 한편 사회복지전공 교과과정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장실습과 노인부양의식에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편인데,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노인분야 실습경험이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노인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6]. 이와 함께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노인복지 분야에서 경험한 학생들이 노인복지분야 취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27], 노인복지 분야에서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고정관념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는 부양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분야 실습경험을 경험요인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했다.

4) 인구사회학적 요인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출생순위, 종교, 경제수준 등이 이들의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연령이 높은 경우[38]와 종교가 있는 경우는[18] 연령이 낮고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부양의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나 출생순위, 그리고 경제수준은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른 부양의식 수준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는 반면[1, 37, 13],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양의식이 더 높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다[18]. 마찬가지로 출생순위에 따른 부양의식수준 또한 다양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장남이거나 외동의 경우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1]. 이와 함께 가정의 월수입이 많은 경우[34, 13]또는 중하위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2] 부양의식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경제수준은 부양의식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21, 30].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자료 수집은 2011년 5월 19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서울과 충청남북도 지역 4년제 대학 4개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350명과 경기도와 충청북도 소재 전문대학 사회복지과 학생 267명, 그리고 서울 지역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사회복지과 학생 8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다. 설문조사는 수업담당 교수가 연구목적과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수업시간 전후에 실시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731부 이나 사용이 어려운 자료 29부를 제외한 총 702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3.2 측정도구 및 조작적 정의

1) 노인부양의식

노인부양의식은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황정순이 Turkman & Longe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45]. 이 척도는 경제적 부양, 신체적 부양, 정서적 부양으로 유형화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매우찬성: 5점, 매우반대 1점)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 점수가 3점 이상이면 노인부양의식수준이 높은 편으로 설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의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값은 경제적 부양 .797, 신체적 부양 .814, 정서적 부양 .818이며 전체적 Cronbach's Alpha값은 .896이다.

2)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이 가진 성향을 이해하고 노인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는 Sanders등(1984)이 개발한 의미분화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개의 쌍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노인을 표현하는 형용사의 쌍으로 조합되어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1: 매우 긍정적인, 7: 매우 부정적)로 되어 있고 최저 20점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말하며 최고 140점은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각 문항의 3.5점에서 4.5점까지를 노인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로 분류하였고 총 점수 70-90점사이가 중립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범주가 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태도는 총점 70점 이하이며 부정적인 태도는 총점 90점 이상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Cronbach's Alpha값은 .845이다.

3)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은 노인과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Palmore가 개발하고 수정보완한 Facts on Aging Quiz Part I (FAQ I)을 활용하였다[50]. 이 척도는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과 노화에 대

한 신체/생리적, 심리적, 가족/사회적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진술문의 짝수문항은 모두 정답이고 홀수문항은 모두 오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총점은 25점이며, 각 진술문에 대하여 마다 맞다(1점), 틀리다(0점), 모르겠다(0점)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값은 .71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활용된 Cronbach's Alpha값은 .771로 나타났다.

4) 노인관련 경험

노인 관련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근거로 노인과의 긍정적 동거경험, 노인관련 과목수강 경험, 노인관련 자원봉사 경험, 그리고 노인복지분야 실습경험을 노인관련 경험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요인의 경험여부를 있다, 없다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분석 시 1, 0으로 처리하였다.

5) 인구사회학적 요인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노인부양의식과 관련이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로 확인된 성별, 연령, 출생순위, 종교, 성장지역, 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3.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특성, 노인부양의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는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존재를 파악하고 주요 독립변수와 독립변수 간 전반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태도, 지식, 경험이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분포를 보면 여자가 73.1%로 남자보다 상당히 많았고, 연령은 20세부터 63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20대(79.1%)였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가장 많

고 둘째, 셋째,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37.6%), 천주교(11.7%), 불교(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장지역은 도시지역이 83.5%를 점유하고 있고, 농촌지역이 14.2%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은 400만 원 이상이 25.5%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299만원(22.6%), 300만원~399만원(21.2%), 110~199만원(11.6%), 100만원 미만(6.8%)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수된 설문 중에서 종속변수에 결측 값이 있거나 한 사례에 다중의 값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여 최종 702사례가 분석되었고, 이 사례 중 월 평균 수입은 수입을 기재한 사례만 분석 되었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빈도(백분율)	계
성 별	남	189(26.9)	702
	여	513(73.1)	
연 령	20~29세	555(79.1)	702
	30~39세	50(7.1)	
	40~49세	54(7.7)	
	50세 이상	43(6.1)	
출생 순위	첫째	307(43.7)	702
	둘째	241(34.3)	
	셋째	68(9.7)	
	외동	40(5.7)	
	기타	46(6.6)	
종 교	불교	81(11.5)	702
	기독교	264(37.6)	
	천주교	82(11.7)	
	기타	11(1.6)	
	없음	264(37.6)	
성장 지역	농촌	100(14.2)	702
	도시	586(83.5)	
	어촌	4(0.6)	
	산촌	1(0.1)	
	기타	11(1.6)	
월 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48(7.4)	647
	100만원~199만	112(17.3)	
	200만원~299만	159(24.6)	
	300만원~399만	149(23.0)	
	400만원 이상	179(27.7)	

4.2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수준

조사대상자들의 노인부양의식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4.05점으로 나타났다. 노인부양의식은 척도의 각 문항 점수가 3점 이상이면 부양의식수준이 높은 편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근거할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부양의식수준을 측정한 다른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에도[18, 35, 3] 조사대상자의 노인부양의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상관관계 분석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수 간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8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8
1	1	.081	.336**	.389**	.290**	-.017	-.044	.027
2	.081	1	.072	.112	-.026	-.015	.125**	.138**
3	.336**	.072	1	.729**	.188**	-.086	-.059	-.086
4	.389**	.112	.729**	1	.271**	-.041	.099	.054
5	.290**	-.026	.188**	.271**	1	-.003	-.051	-.010
6	-.017	-.015	-.086	-.041	-.003	1	.215**	.206**
7	-.044	.125**	-.059	.099	-.051	.215**	1	.275**
8	.027	.138**	-.086	.054	-.010	.206**	.275**	1

- 1. 노인과의 긍정적 동거 경험
- 2. 노인관련 과목 수강 경험
- 3. 노인대상 자원봉사 경험
- 4. 노인복지분야 실습 경험
- 5. 노인에 대한 태도
- 6. 노인에 대한 신체적 및 생리적 지식
- 7. 노인에 대한 심리적 지식
- 8. 노인에 대한 가족 및 사회적 지식

4.4 노인에 대한 태도, 지식, 경험이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노인에 대한 태도($\beta=-.259, P<.001$), 노인에 대한 신체 및 생리적 지식($\beta=.138, P<.001$), 노인과의 경험요인 중 긍정적 동거 경험($\beta=.97, p<.01$)과 자원봉사 경험($\beta=.124, p<.01$), 그리고 연령($\beta=.099, P<.05$)이 노인부양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 참조). 즉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태도가 긍정적 일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노인과의 긍정적 동거경험과 자원봉사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부양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과 만족스러운 경험이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이 노인 관련과목을 수강하거나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노인과의 다양하고 풍부한, 그리고 긍정적인 경험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표 3〉 노인에 대한 태도, 지식, 경험이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변인	β	t
통계변수	성별	.035	.951
	연령	.099	2.239*
	출생순위	-.041	-.995
	종교	.045	1.220
	성장지역	.010	.260
독립변수	경제수준	.071	1.920
	노인과의 긍정적 동거 경험	.097	2.603**
	노인관련 과목 수강 경험	-.008	-.210
	노인대상 자원봉사 경험	.124	3.231**
	노인복지분야 실습 경험	.031	.771
노인에 대한 태도 요인	노인에 대한 태도	-.292	-7.510***
노인에 대한 지식 요인	노인에 대한 신체적 및 생리적 지식	.138	3.639***
	노인에 대한 심리적 지식	.036	.898
	노인에 대한 가족 및 사회적 지식	-.003	-.069
R ²		.428	
F		10.040***	

*p<.05, **p<.01, ***p<.0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지식, 경험이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첫째,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부양의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식요인 중 노인에 대한 신체 및 생리적 지식이 많을수록 노인부양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동거경험

과 자원봉사경험이 많을수록 노인부양의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연령이 노인부양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 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인에 대한 태도와 지식이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함양과 긍정적인 태도 습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지식습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처럼[31, 46, 43, 9],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위해서는 노인 관련 수업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즉 교육을 통한 긍정적 태도의 함양은 노인부양의식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과의 긍정적 동거 경험이나 자원봉사 경험이 부양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노인과의 관계와 경험의 질이 노인부양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년기 가족관계는 가족과 맺은 관계의 연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가정에서 노인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는 교육방안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되는 것은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노인관련 자원봉사 활동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관련 자원봉사 활동 처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의 자원봉사를 지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 실천 현장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슈퍼바이저의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이 노인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보람을 느끼고, 양질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고경애 (1990),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2] 고경자·이은민 (2000),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논문집, 8, pp. 5-36.
- [3] 권기갑·이재모 (2009),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영향. 한국지역혁신논집, 4(2), pp. 1-17.
- [4] 김미혜 (2002),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8, pp. 69-89.
- [5] 김송애·조병은(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pp. 303-322.
- [6] 김수영·양경미·오현이·김진선(2002),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한국노년학, 22(3), pp. 21-36.
- [7] 김숙경(2010),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30(2), pp. 439-451.
- [8] 김용순(2001),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김 옥(2011),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연구, 한국노년학, 31(3), pp. 505-526.
- [10] 김윤정·강인·이창식(2004), 청년 중년 노년 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 22(1), 65-75.
- [11] 김윤정·이창식(2006), 청소년의 부양동기와 부양의식간의 관계, 청소년연구, 13(6), pp. 101-125.
- [12] 김윤정·장세철(2008), 한국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부모부양의식 비교, 일본문화화보, 39, pp. 211-229.
- [13] 김지영(2001), 대학생의 노인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류정려·자요세철(2010), 한국·중국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 비교에 관한 연구, 동방학, 19, pp. 393-422.
- [16] 류효신(1985), 우리나라 주부의 노인부양의식 태도에 관한 연구, 인구보건논집, 5(2), 41-56.
- [17] 박문규(2008), 여대생들의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 논문집, 30, 243-260.
- [18] 박인진·최외선·김애희(2006),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부모 교육연구, 3(2), pp. 279-49.
- [19] 박지영(2012), 여성 결혼이민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부양동기 및 관계의 질이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 16(4), pp. 160-180.
- [20] 박현숙(2009), 여고생의 노화지식 및 노화불안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박형중·김병성·김수혜(1993), 부산시내 일부 대학생들의 노인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건강

- 증진학회지, 10(2), pp. 56-72.
- [22] 서병숙(1986), 부모노후의 책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6(1), pp. 101-120.
- [23] 송다영·김미경(2003). 여성의 취업실태별 노인부양 부담과 역할갈등, 한국여성학, 19(2), pp. 145-176.
- [24] 윤성은·한경혜(2002),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9), pp. 207-221.
- [25] 이가옥(1990), 노인부양체계 및 노인부양지표의 개발, 한국노년학, 10(1), pp. 146-162.
- [26] 이병순(2006), 맞벌이 여성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 영등포구 30~50대 주부를 대상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이봉재(2006),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노인복지분야 취업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2(1), pp. 75-103.
- [28] 이영진(2001),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세대별 비교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9] 이은경(1999),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 노후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 pp. 45-65.
- [30] 이은민(199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1] 임영신·김진선·김기선(2002),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한국노년학, 22(1), pp. 31-46.
- [32] 조성남(2006), 노인부모부양에 관한 기혼자녀세대의 인식, 한국인구학, 29(3), pp. 139-157.
- [33] 조지현·오세근·양철호(2012), 동아시아 4개국의 노인부양 의식 및 노인부양행위에 관한 연구, 사회연구 통권, 22(1), pp. 7-42.
- [34] 최강호(2001), 농촌초중고생의 노인부양의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5] 최승아·정지홍·조승중·진선미(2009), 대학생의 노인대상 자원봉사 참여태도 및 만족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46, pp. 239-261.
- [36] 최승원·정혜정·서병숙(1997),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15, pp. 83-100.
- [37] 최정혜(1997), 대학생의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5(6), pp. 55-69.
- [38] 최정혜(1998), 각 연령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심리학적 고찰, 한국 노인과학 학술단체연합회 '98 학술대회 및 분과학회 추계학술대회, pp. 123-134.
- [39] 최정혜(1999),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의 세대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9), pp. 85-101.
- [40] 통계청(2006), 사회조사.
- [41] 통계청(2010), 고령자통계.
- [42] 통계청(2011), 사회조사.
- [43] 한정란·류희선·김기진(2007), 대학생들의 노화에 대한 지식 및 노인에 대한 태도, 직업교육연구, 26(3), pp. 121-139.
- [44] 홍달아가·하근영(2002),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전북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1(2), pp. 1-15.
- [45] 황정순(2004),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과 노후대비 의식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6] Gellisa, D., Shermana, S., and Lawranceb, F.(2003). First year graduate social work students' knowledge of and attitude toward older adult, *Educational Gerontology*, 29(1), pp. 1-16.
- [47] Hawkins, M., J.(1996).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person, *Educational Gerontology*, 22(3), pp. 271-279.
- [48] Mehtaa, K. K., Tanb, P. P., and Joshic, V. D.(2000). Singapore social work students: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10(2), pp. 40-54.
- [49] OECD. (2011),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 [50] Palmore, E. B.(1977), Facts on aging: A short quiz, *The Gerontologist*, 17(4), pp. 3151-320.
- [51] Uhlenberg, p.(1996), The burden of aging: A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shifting balance of caregiving and care receiving as cohort, *The Gerontologist*, 36(6): pp. 761-767.

이 민 숙



- 1982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문학사)
- 2005년 8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0년 6월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수료)
- 관심분야 : 노인복지, 가족복지, 자원봉사

· E-Mail: lightj40@hanmail.net

양 소 남



- 1995년 2월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1997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5년 7월 : 영국 노팅엄 대학교 사회사업학과(사회사업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가족복지, 아동복지, 사회사업 실천

· E-Mail: snyang@kyonggi.ac.kr